

박물관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2003 | 봄 · 창간호

발간사 「박물관사람들」을 발간하며 축하인사 「박물관사람들」의 발간을 축하하며

특집 한국의 화폐 박물관 탐방 화폐박물관을 찾아서 학술발표 요지 인증시책과 고려전기 회화

유물사랑 동심동 패면 전시실 산책 어느 그림 한 폭 답사를 다녀와서 일본의 박물관을 돌아보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유물복원과 함께 한 3년 유물기증 돌아온 화각함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박물관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박물관사람들」을 발간하며

유 상 옥 | 한국박물관회 회장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77년 당시 최순우 관장님의 구상으로 박물관 특설강좌가 개설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 온 지 27년째가 된다. 그간 한국박물관회가 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후원하여 개설한 특설강좌의 수료생이 만여 명에 이르며, 일 년 과정을 수료하고 분야별로 연구강좌 과정을 수강하는 회원도 매년 1,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광복 후 건국하자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우리의 가난은 여전했다. 그러나 다행히 산업화 과정이 점차 성공하여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옛말에 衣食足而知禮節이라 하였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절을 알고 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제 만 불 소득 시대가 되었지만 특설강좌를 개설한 해의 국민소득은 불과 천 불이었다.

우리는 오천 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 못살고 어두웠던 시절…… 서양문물이 밀려들면서 우리 문화가 뒤로 밀려나 있을 무렵 자랑스런 전통문화창달에 나선 국립중앙박물관의 특설강좌 개설은 참으로 장한 일이다. 특설강좌와 연구강좌에서 배출한 전통문화 애호가를 회원으로 구성한 본회가 전통문화학습을 비롯하여 고적답사, 해외유적답사 등을 통해 회원들의 문화활동의 증진과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박물관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찬란한 문화를 알고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의 여망에 따라 「박물관사람들」을 계간으로 발행하여 회원과 문화관계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수준높은 문화를 소개하는 간행물을 만들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자랑할 용산의 새 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에 맞추어 발행되는 「박물관사람들」이 전통문화창달에 깊이를 더하길 바란다.

「박물관사람들」의 발간을 축하하며

지 건 길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국박물관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지 벌써 스물 두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물관회는 친목단체로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특설강좌의 운영과 박물관의 학예직에 대한 연구비 지급, 회원을 위한 국내·외의 역사유적탐방 등 박물관에서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박물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특설강좌는 벌써 올해로 스물 일곱 번째를 맞아 그 사이 만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연구과정을 마쳤고, 그중 백 명이 넘는 수료생들이 지금 박물관 자원봉사자로 전시실과 학예연구실에서 전시안내와 연구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렇듯 빠른 걸음으로 성장해 온 한국박물관회도 용산의 새 국립중앙박물관 시대를 앞두고 당연히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회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의 개편과 함께, 지금까지 이루어 온 박물관회 사업의 내실 있는 다양화와 날로 늘어나는 박물관회원들을 한데 결속시킬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환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박물관회의 새로운 변화와 결속을 위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박물관사람들」이라는 회지를 창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이룰 뿐 아니라, 박물관과 박물관회의 간격을 한층 좁힐 수 있는 매체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한국박물관회가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는데 충실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빌며, 이 회지가 우리 박물관 홍보를 위한 전도사의 자리를 굳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폐가 걸어온 길

우리 민족은 고조선시대에 이미 子母錢을 사용했다고 하며, 삼한시대에 와서는 쇠가 중요한 교환수단이였다. 魏書 東夷傳에 ‘나라에서 쇠가 나는데, 이를 漢·穢·倭에서 가져간다. 시장에서 쇠로 사고 팔아서 중국에서 돈(錢)을 가지고 쓰듯 한다. 또 낙랑과 대방군에도 공급해준다.’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무덤바닥에 깔려 있는 板狀鐵斧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농·공구로 사용했으나 차츰 기능을 잃어가면서 돈[地金]의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

삼한시대에는 금속을 소재로 한 稱量貨幣나 물품화폐가 유통되었고, 특히 東沃沮에서는 금·은 무문전을 사용했다고도 한다.

백제의 鐵鋌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에 근초고왕이 왜 사신 爾波移에게 철정 40매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철정은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에서 출토되는데, 최근에는 중부내륙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무령왕릉의 지석 위에는 ‘五銖’라는 글씨가 새겨진 쇠돈 한 꾸

러미가 놓여 있었다. 실제 지석의 買地卷에는 이 돈으로 토지신에게 무덤터를 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鐵製五銖錢은 양나라 무제 때 만든 것으로, 523년 무령왕 사망 즈음에 양나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소지왕 2년(490) 경주에 상설시장인 京市가 처음으로 개설되었고, 지방에도 鄉市가 있어 교환경제가 이루어졌다. 물품화폐로는 생활필수품인 쌀·布帛이 주로 사용되었다.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화폐가 있었으나 유통되지는 않았고,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신라에서 금·은으로 전(錢)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칭량화폐의 형태로 쓰였던 것 같다.

신라 고분에서 금세공품이 많이 출토되는 것만 보아도 금이 많이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은이 칭량화폐의 기능을 다했지만 그것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新羅國錢 無文’이나 그밖의 기록을 보면 신라에는 금·은을 소재로 한 두 종류의 무문전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고대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나, 화폐에 대해서는 기록으로만 전해오고 있을 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고려 성종 15년(996)에 주조한 東國銘 東國重寶는 우리 나라 최초의 주화로, 중국의 당나라 숙종 2년(759)부터 주조된 엽전인데, 뒷면에 ‘東國’자를 새겼다



乾元重寶(뒷면 東國), 996년(고려 성종 15) 발행, 너비 2.3cm

刀錢 : 칼모양을 본떠 만든 고대중국의 도전은 춘추전국시대에
 융성했던 제나라를 중심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가 후에 앞면으로 내어 만든 것이다. 그후 숙종 2년
 (1097)에 鑄錢官을 두고 有文錢을 주조해 관리들에게
 分賜하여 市井에 유통을 권장했다. 海東重寶·三韓通
 寶·三韓重寶·東國通寶·東國重寶 등이 그것이다.
 숙종 6년(1101)에는 銀瓶모양의 은화를 주조했고,
 1102년에는 보조화폐인 海東通寶도 주조되었다. 충렬
 왕 13년(1287)부터는 銀瓶錢의 위조와 은·구리의
 合鑄를 막기 위해 碎銀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양왕 3년(1391)에는 송나라의 劔子와 원나라의 至元
 寶稍를 모방한 우리 나라 최초의 지폐
 인 楮貨를 印造하여 통용하게 했는
 데, 이것은 楮紙 표면에 화폐의 가치
 만을 表章한 것이다. 『經國大典』에 의
 하면 저화 1장에 쌀 1되, 저화 40장에 正布 1필이라고
 되어 있다. 『經國大典』에는 저화가 國幣로 기록되어
 있으나 『續大典』에는 폐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
 선 중엽에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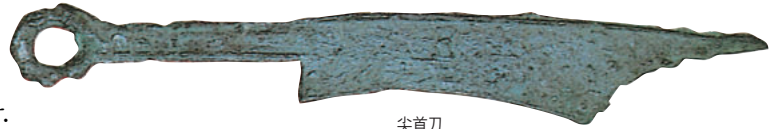
조선 태종 1년(1401)에 저화를 印造하여 法貨로 지
 정하고, 세종 5년(1423)에는 당나라의 開元通寶를 모방
 한 朝鮮通寶를 주조했으며, 세조 9년(1464)에 節幣를
 주조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았고, 인조 11년
 (1633)에는 常平通寶를 주조해 널리 통용했다. 조정에
 서는 상평통보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에 국한
 했던 租稅 중에서 大同米 등 일부 公課의 錢納을 허
 용하면서 점차 확대되자, 숙종 4년(1678) 이후 각 道監
 營에도 鑄錢을 명령·허가하여 많은 양의 주화가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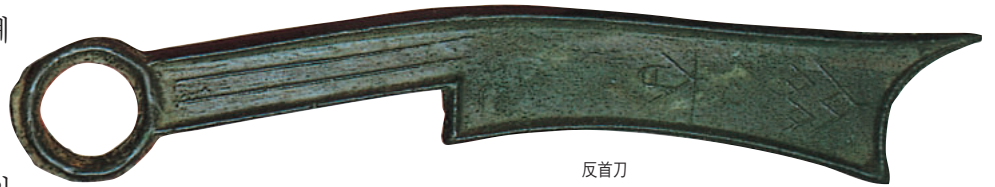
新刀錢(一刀平五千)




方首刀



尖首刀



反首刀

반적으로 유통되었다. 고종 3년(1866) 대원군 집정 당
 시 쇄국정책에 따른 군비확충과 경복궁의 조영을 위
 한 비용조달과 재정의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當百錢
 을 주조해 강제통용시켰으나 1869년 통용을 금지하고
 무상으로 강제회수했다. 그후 1882에는 서양식 화폐인
 大東銀錢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1883년 강화조약 이후
 누적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當五錢을 주조하여
 주로 경기·해서·호서지방에서 유통시켰다. 그러나
 당백전보다 더 조악하여 소기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
 고 물가만 폭등시키며, 화폐제도를 더욱 문란하게 만
 들었다. 그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근대 화폐체제로
 오늘에 이르렀다.  (련)

돈 이야기

첫째 이야기

燕巖 朴趾源의 『熱河日記』 중 〈옥갑야화(玉匣夜話)〉에 나오는 經世와 致用을 공부하는 불우한 선비 許生의 돈 얘기다.

서울 목적동에 살던 허생이 가난에 찌든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학업을 중단하고 출가해 장안 갑부 卞氏에게서 만 금의 돈을 빌린다. 그는 그것을 자본으로 과일과 말총 등 생활필수품들을 매점 매석하여 수십만 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수 천의 도적들을 설득시켜 무인도에 정착시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하는 작물로 마침 흉년이 든 일본에 팔아 또 백만 금을 얻는다.

이런 거금이 당시의 현실적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십만 냡을 바다에 버리고, 남은 돈으로 여러 곳의 가난을 구제하고 십만 냡을 남겨 변씨에게 빚을 갚으러 가니, 변씨가 “그대의 얼굴빛이 전보다 낫지 않으니 만 냡을 잃어버린 모양이군.”했다. 허생이 껄껄 웃으며 “財物로서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商人]들이나 할 일이지, 만 냡이 아무리 중한들 어찌 道를 살찌게 하겠는가.”하고 돈 십만 냡을 돌려주며, “내가 한 때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글읽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만 냡을 부끄러워할 뿐일세.”했다. 양반은 얼어죽어도 결불은 찢지 않는다는 介潔한 자존심의 발로였다. 원금의 열 배를 받을 수 없다는 변씨를 설득시켜 돌려주고 다시 가난한 선비로 돌아간다.

이는 연암의 사상이 실학 중 北學에 젖어 重商主義에 바탕을 두었지만, 그래도 돈이란 생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財寶로써 목적일 수 없다는 선비의 신념을 굳게 지킨 것이다.

麗代의 문인 林椿이 돈[엽전]을 의인화하여 쓴 작품 『孔方傳』에서도 돈은 탐탁하지 못한 敬遠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方[돈]은 그 사람됨이 때에 따라 應變을 잘하고 욕심스럽고 더러워 염치가 없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어질거나 불초함에 개의치 않고, 거리의 악소년들과 어울려 내기 바둑이나 투전을 일삼는다.”고 비하했다. 물론 당시가 농업경제사회였으니 돈으로 인해 기존의 체제가 바뀌고 인심이 각박해져서 작은 이득을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을 비판했다. 또 돈이 權貴와 야합하여 파당을 이루는 폐단이 많았다. 그래서 ‘方的 말 한마디는 황금 백 근의 무게만 하다’고 했으니,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귀신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지금의 세대와 다를 바 없다.

둘째 이야기

은행권[돈]의 디자인은 그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을 국민정서에 맞춰 예술적 감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앞면에 훌륭한 역사적 인물의 초상을 많이 넣는다. 이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인물 개개인의 독특한 인상과 개성을 표출시켜 위폐방지의 방편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나라마다 인물초상에 관한 일화도 많다. 우

리 돈도 예외는 아니다.

1962년 5월 16일에 발행한 100환 짜리 은행권은 역사적 인물에서 벗어나 최초로 일반인을 소재로 한 母子像 지폐였다. 한복차림의 어머니가 색동옷을 입은 아들과 함께 저금통장을 바라보는 흐뭇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 돈이 유통되자 문제가 생겼다. 그 인물의 실체가 당시 5. 16혁명 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던 집권자의 부인과 아들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은행권은 25일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실 그 주인공은 조폐공사에 다니다 퇴

직한 권 모 여인과 그의 두 살짜리 아들이 후에 밝혀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도안실장의 권유로 찍은 사진이라 했다. 이 100환 권이 우리 화폐사상 가장 짧은 유통기간을 기록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ㄹ(山)

돈에 얽힌 속담 몇 가지

|| 궁상에는 돈이 붙지 않는다 || 궤 속에서 녹슨 돈은 똥도 못 산다 || 남편 돈은 내 돈이고 자식 주머니 돈은 사돈네 돈이다 || 돈과 욕심은 늘수록 커진다 || 돈나는 모퉁이가 죽는 모퉁이다 || 돈은 부자간에 세어주고 세어받는다 || 만팔은 돈 주고도 못 산다 || 싸라기 한 말에 칠 푼 오 리를 해도 오 리가 모 자라면 못 산다 || 자손의 현명은 돈으로도 못 산다 || 장인 돈 떼어먹듯 한다 || 흰 술은 사람 얼굴을 붉게 하고 황금은 사람 마음을 검게 한다 || 돈 줄 때는 부처이고 받을 때는 야차(저승사자)다 || 쇠는 불에 달궈봐야 알고 사람은 돈거래를 해봐야 안다 || 나그네길에 들면 자식촌수보다 돈촌수가 더 가깝다 || 늙은이 망령에는 고기가 약이고 아전 망령에는 돈이 약이다 || 부자 외상보다 거지 맞돈이 낫다 || 돈만 있으면 염라대왕 문서도 고친다 || 개도 돈만 있으면 명침지

화폐박물관을 찾아서

이번 창간호 특집을 ‘돈’으로 정한 우리는, 하늘도 맑은 늦가을인 11월 10일 상쾌한 아침공기를 가리며 화폐박물관을 찾았다.

화폐박물관은 한국조폐공사가 1988년 6월에 우리나라 화폐제조 천여 년의 역사와 자사의 발전사적 등 국내외 화폐문화의 사료와 연혁을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해 화폐에 대한 연혁적 연구와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고, 화폐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화폐 제조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며, 화폐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화폐박물관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 안에 자리잡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국립중앙과학관·지질박물관·대전시립미술관 등을 연계하는 대전지역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명소로, 화폐경제의 지식을 터득하는 현장체험교육장이자 휴식처로서 민족문화적 가치가 풍부하다. 개관 후 1년만에 화폐자료에 대한 도록을 발간해 화폐박물관에 소장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약 12만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50여 명이 관람하고 있다.

내부는 3개의 전시실과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실은 기원전 8세기 경부터 화폐와 화폐대용으로 사용한 포전·도전과 그리스·로마시대 주화 등의 금속화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관도전인 고려시대 철전, 조선시대 상평통보, 근대전 및 한국은행 주화와 역

대 올림픽을 위시한 각종 기념주화 등을 전시해 주화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전시된 유물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 주나라 때 사용되었다고 하는 𠄎幣다. 이는 禮樂을 중시하던 周代의 제례악기인 𠄎을 본뜬 화폐로 청동으로 만들었다.


제2전시실에는 지폐와 제조관련 재료와 인쇄기 등을 전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제일은행권과 구 한국은행권을 위시해 조선은행권·한국은행권과 이들 은행권의 제조순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되어 있다.

제3전시실에는 국내외서 발행한 각종 우표를 비롯하여 훈장·메달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조폐문화의 종합예술로 불리는 훈장과 메달 제조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기량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진귀한 외국화폐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계 100여 국의 화폐들이 진열되어 있다. 또한 이 화폐박물관에는 귀중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2002년 세계기념주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으로 우리 나라 주화의 예술성을 한껏 자랑하고 있다.

영상실은 인류의 화폐발달사와 한국조폐공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미래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첨단기기인 멀티슬라이드를 통해 시각프로그램을 영상화했다. 주화·은행권·은행권 용지·우표 등의 제조공정 중 주요공정을 와이드칼라 필름으로 소개하고, 각 공정에 따른 자료도 알기 쉽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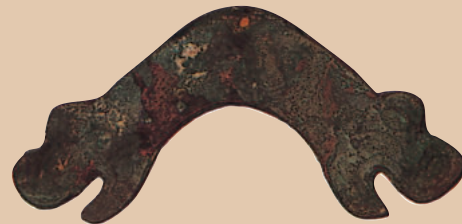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폐하면 돈을 연상하고, 돈하면 부나 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화폐박물관에서의 화폐는 인류의 경제생활 수단으로써, 그 생성·발달과정 등을 지금까지 수집·보존된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으로 정리해 화폐발달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화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는 민족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이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느꼈다.  (은)



貝貨 : 기원전 16세기 경에는 조개껍질이 중요한 화폐의 기능을 했다.



魚幣 : 중국 내륙지방에서는 생선이 귀해 건어류를 선물이나 지불수단으로 사용했고, 청동 인조건어를 화폐로 사용했다.



髻幣 : 禮樂을 중시하던 주나라 때는 청동으로 제례악기인 髻모양을 본뜬 화폐를 사용했다.

仁宗諡冊과 고려전기 회화

김예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高麗仁宗諡冊』 43편이 소장되어 있다. 諡冊은 왕이나 왕비의 死後에 諡號를 加上할 때 만드는 것인데, 이 시책은 고려 仁宗이 죽고 毅宗이 즉위한 1146년에 제작되었다는 정확한 간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책의 앞뒤로 매우 미려한 線刻天部像 두 점이 있어 회화자료가 희소한 12세기 고려의 궁중회화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시책의 명문에서 황통은 금나라의 연호이며, 병인제는 인종이 죽은 1146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책은 인종의 崩御 직후, 시호를 가상한 뒤 장릉에 모셨던 진품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은 인종의 덕성과 서경의 난 진압 등 그 위업을 칭송하는 내용의 전반부와, 임금의 서거를 맞이한 신하의 비통한 심정을 묘사한 중반부, 그리고 공효대왕이라는 시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종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西京의 난, 즉 묘청의 난에 대한 진압을 주요한 업적으로 기술한 부분으로, 이 시책을 쓴 사람이 서경천도에 반대했던 사대승유적 인물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시책 원문을 쓴 사람은 다만 삼사검교태부수태위문하시랑 동 중서문하평장사라는 벼슬명만 확인될 뿐인데, 여기 나오는 벼슬명칭과 시책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시책을 쓴 사람은 묘청의 난 진압 등의 공을 세워 인종의 총애를 받았고, 인종실록을 지었던 金富軾(1075~1151)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제1엽과 제43엽의 천부상은 모두 부식과 오염의 정도가 심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 그동안 고려시대의 미술사와 관련하여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한 각도에서 조명을 설치해보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고 탁본으로도 느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선묘가 드러난다.

먼저 도상을 살펴보면, 두 신장이 경책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마주보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고, 복식과 지물, 표정과 자세 모두 대칭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뒤통수 쪽으로 틀어올린 상투 위로 관모를 쓰고 있는데,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갑옷 밑으로 드러난 裙衣는 가죽신을 신은 양다리 사이를 관통하며 뒤쪽으로 휘날리고 있다. 한편 맞바람에 타오르는 火焰頭光과 양어깨를 걸쳐 가슴으로 흘러내려왔다가 다시 양팔에 걸쳐져 뒤로 휘날리고 있는 天衣는 이 존상이 지상의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神像임을 알려준다. 이렇게 經冊의 시작과 끝부분에 神像을 배치해 수호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특히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의 寫經 및 版經에서 유행했던 형식으로, 이 시책의 신상은 그런 사례의 선구가 된다. 그러나 이 천부는 고려사경화 등에 등장하는 후대의 神將像과는 상당히 다른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불교 신장상의 필수



지물인 금강저와 연화좌 같은 모티프가 등장하지 않고 금도끼라는 지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제43엽의 천부는 양손으로 긴 장대를 세워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1엽의 천부상과 비교해보면 금도끼[金鉞]가 분명하다. 고려 인종이 즉위한 이듬해(1123) 고려를 방문했던 徐兢(1091-1153)에 의하면 “고려의 금도끼는 柱斧와 비슷하되 장대의 끝에 鸞鳥를 한 마리 세워놓은 형상을 했으며, 갈적에는 움직여 치켜오르는 형상을 하며, 왕이 거동하면 龍虎親衛軍將이 이를 잡고 뒤에서 따른다”고 했다. 이는 바로 제1엽의 천부가 들고 있는 지물은 기록에 나오는 난새모양의 금도끼와 매우 유사하다. 더구나 시책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시책을 호위하는 천부의 지물로 국왕 친위대의 주요 의장물인 금도끼가 등장하는 점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존상은 국왕과 왕실의 위엄을 표상하는 천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적인 호법신상과는 구별해야 한다.

양식적으로는 먼저 부분적이거나 肥瘦가 강한 묘선이 보이고, 천의와 화염의 휘날림과 울동감이 두드러지는 점에서 통일신라의 전통에서 이탈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에서 吳帶當風이라고 특징짓는 양식으로, 吳道子를 계승한 북송대 高文進派 양식과 관계있다. 고문진은 蜀體道釋人物畫의 대가로 尊像이나 祖神을 표현할 때는 趙仲達식으로 그렸지만 天이나 侍者를 묘사할 때는 吳道子식으로 그렸다고 전한다. 1076년 고려의 崔思諫(?-1092)이 모사해왔다는 卞京의 相國寺 벽화가 바로 고문진이 그린 것이라는 것은 일찍이 북송대 고문진과 도석화풍이 고려의 궁정에 수입되었을 개연성을 짚게 하며, 이 천부의 모습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오대당풍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가정에 구체적인 무게를 실어준다.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비례와 자연스러운 자세, 통일감 있는 동세 표현은 옥책에 귀족적인 우미함을 더해준다. 존상의 또렷한 눈매와 굳게 다문 입술은 거부할 수 없는 근엄한 분위기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세부적인 특징은 이 존상의 초본을 그린 사람이 일개 工匠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궁정화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인물은 고려초 궁정화가 李寧이다. 그는 睿宗(재위 1105~22) 때 ‘畫局’에서 활동을 시작해 인종 2년(1124)에는 북송으로 건너가 철종에게 그림솜씨를 칭



찬반고, 毅宗(재위 1146~70) 때는 마침내 궁정내 繪士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은 인종에서 의종으로 넘어가는 1246년 당시, 궁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가 이녕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녕은 무엇보다도 산수화를 전문으로 그렸던 화가이기 때문에 인물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책의 초본을 그렸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아쉽게도 현존의 기록을 통해서는 인종 때 유명한 궁정인물화가 누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천부상의 높은 기량과 임금의 시책에 새겼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왕실의 최고 화가가 이 천부상의 초본을 그렸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작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이녕이 지도한 화국에서 활동했던 제1급의 화가였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화풍에서 선구적으로 나타나며 이후 14세기까지의 왕실발원 사경화에서 나타나는 오대당풍적인 요소의 화풍을 이녕이 지도했던 고려중기 화국의 화풍으로 개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종시책은 단순한 시책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문장가였던 김부식의 글과 궁정화가 이녕의 지도 아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화국에서 제작한 그림이 결합한 작품으로, 그 기년까지 분명하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미술사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작품이다. 특히 천부상에서 간췌되는 오대당풍적 율동감과 극적인 비수의 대비는 이전의 통일신라적 미술전통에서 이탈한 새로운 요소로, 이후 14세기 전반의 왕실발원사경화까지 지속되는 고려전통의 시원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회에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논문의 요지입니다.

동삼동 貝面

임 학 종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반도의 동남쪽 끝인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조가비 가면이다. 가리비과 큰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의 오른쪽 껍질에 작은 구멍 두 개를 내어 눈을 만들고, 큰 구멍 하나를 뚫어 입을 만들었다. 영락없는 사람 얼굴 모양이다. 조개를 잡아먹고 그 중에 잘 생긴 놈 하나를 골라 만든 것이리라. 조상들의 얼굴이리라. 움집 제일 신성한 곳에 모셔 놓고 다음 번 조개잡이에서도 이렇게 크고 예쁜 조개를 잡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이다. 왼쪽 껍질로 만든 어머니 조상신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였나 보다.

큰가리비는 두 개의 껍질로 이루어진 조개이다. 찬 바닷물에 산다. 왼쪽 껍질은 붉은 갈색으로 약간 오목하고, 오른쪽 껍질은 흰색으로 더욱 오목하다. 보통 부챗살처럼 된 24~26개의 줄이 뻗어 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정성들여 갈았다. 구멍은 조가비의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타격하여 내었다. 두 눈과 입을 가운데에 두어 좌우동형이 되게 했다. 대충 만든 듯 하지만 눈과 입 사이의 비례나 구도, 크기가 보통 솜씨가 아니다. 두 눈은 찢어지지 않고 둥글어 익살스러운 맛이 없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나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무섭다 못해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계급간의 알력이 극대화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사이비 종교가 생기게 마련이다. 산이나 들, 바다에서 먹거리를 구하던 신석기인들에게는 이런 말기적 현상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태풍이나 화산의 폭발, 지진, 맹수의 습격 등

이 더 두려운 존재였다. 이 조가비 가면이 이런 두려움을 쫓는데 쓰였던 귀신의 얼굴이든, 씨족의 번영과 다수화를 갈망했던 조상신의 얼굴이든,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남감이든, 쿨라 링(kula ring)의 파트너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가 되었든 간에, 오늘날 같이 불확실한 시대의 우리들이 갈망하는 어떤 절대자의 얼굴은 아닐까?

우리는 만달인(*Homo sapiens sapiens Mandal man*)이나 흥수아이(*Homo sapiens sapiens Heungsu child*) 같은 구석기시대의 화석인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인의 직접적인 조상은 신석기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가비 가면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표지(標識) 유적인 동삼동 패총의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탈인 셈이다. 바로 우리 한국인의 처음 모습을 색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인류 최초의 대안인 에니미즘과 토템, 씨족의 영원한 구원자로 상징되는 조상신. 그것은 인류사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그 속에 이 가면이 들어 있는 것이다. **71**



길이 10.7cm, 너비 12.0cm, 신석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어느 그림 한 폭

유 건 집 | 회원

우리가 선인들이 남긴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회귀적 본능에서만은 아니다. 태어나서 옛것의 혼기를 쏘이고 자양분을 받으며 자랐기에 저절로 心魂이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고장에서 명창이 나오고 도공의 후예들이 磁器에 애착을 더 가진다. 내 경우는 예술의 고장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는 것도 아니나 어려서부터 옛것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 어떤 특별한 한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예술성의 우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清濁不問이다. 작품 하나를 대하면 오랫동안 지칠 줄 모르고 보게 되어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갈 때는 대부분 혼자인 경우가 많다. 어느 해인가 대만여행에서 3일 동안 일행을 떠나 혼자 고궁박물관에만 매일 종일토록 관람하고 돌아온 일도 있다. 이런 기행이 남긴 일화 하나.

그날따라 어디로 훨훨 떠나고 싶을 만큼 쾌청한 가을날씨였다. 마침 시간도 있고 해서 중앙박물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연 지 얼마 안되는 東垣 李洪根 선생의 기증문화재전시실을 돌아보던 중 〈秋景〉이라 제목을 붙인 조그만 화첩 앞에 섰다. 작가도 시대도 모르는 20×40cm 정도의 減筆法을 쓴 담채의 산수화로, 보이는 이의 마음이 가라앉는 가을풍경이었다. 한적한 전시실에서 그 그림을 한참 보고 있는데, 젊은 여성 둘이 옆에 와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하도 조용하기에 돌아보니, 두 사람은 나와 그 그림을 이상한 듯 번갈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겸연쩍은 미소를 띄우니까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보기엔 별 볼일 없는 그림을 너무 열심히 보는 것이 이상했던 모양이다.



秋景, 20×40cm, 담채

그중 한 사람은 한국무용을 전공한다는 외국인으로, 우리말도 알기에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그림 참 좋지 않아요?” 하면서 그림에 관한 내 생각을 차근차근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 그림은 구도가 우선 마음에 든다. 온통 물로 둘러싸인 亭子터는 한쪽이 물과 연결되어 옆으로 뻗었고, 앞쪽으로 물 건너에는 안산이 자리하고, 그 너머 먼 山峰이 파랗게 보인다. 화면에 여백이 많으면서도 딱 찬 여유와 충만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왼쪽에 선 고목들은 정정한 줄기에 아직도 단풍든 고운잎을 달고 있어 주인공의 풍류와 나이를 짐작하게 한다. 정자로 들어가는 목을 좁게 흡사 다리처럼 그린 것은 隔世와 은둔을 뜻하며, 터가 평평하고 산들이 나직나직한 것은 평온한 안정감을 준다. 또 草亭을 택한 것은 부와 명예를 멀리하고 소박하게 자연 속에 유유히 노니는 주인의 생활을 표현했다.


바위를 小斧劈皴으로 처리하고, 마당가에 국화와 대나무를 그린 것은 사는 이의 志節을 뜻하고, 벌 두 마리는 자연의 풍요를, 그리고 기러기떼는 계절과 思鄉을 상징한다. 자세히 보면 멀리 나는 기러기와 벌의 크기가 가까이 있는 인물의 얼굴만 하고, 국화줄기가 정자 높이만큼 솟은 것이 그림의 기초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그림도 화가가 자신의 마음을 화폭에 담아야 좋은 그림이 된다. 국화에 대한 강한 向念이 정자에 못지 않고, 기러기와 벌의 존재가 人物에 버금간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대개 그림의 품격은 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뜻에 있다(品格之高下 不在跡而在意)’는 말이니, 곧 法이 極에 이르면 법을 넘어서는(有法之極歸於無法) 경지라고나 할까.

간혹 이곳을 찾는 손님은 술과 茶를 즐길 줄 알며 시를 아는 풍류객들이다. 전 화폭이 담채로 처리된 것을 보면 주인은 中庸의 道를 실천하는 高士로, 먼 山峰에 꿈을 두고 날아가는 기러기떼에 마음을 실었다.

秋景云仙好 가을 풍경 아름다워 仙界처럼 좋은데
蟲鳴菊已開 풀벌레 소리에 국화마저 피었네
征飢群多少 날으는 기러기떼 아물거리고
浮雲任去來 뜬구름 멋대로 오가는구나

題詩의 起句는 理想을, 承과 轉句는 벌써 계절이 바뀌고 늙어서 시력까지 온전치 못한 無常感을 말했다. 그리고 結句에서 世事가 모두 뜬구름임을 깨닫고 여생을 자연에 맡겨 노닐어야겠다는 無慾의 심경을 노래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경치가 아닌 바람과 물결치는 소리, 낙엽과 노젓는 소리가 화폭 밖으로 들려오는 예술세계다. 최소한의 붓놀림으로 이런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추사가 말한 瘦式得格(중요한 것만 꾸밈없이 그려야 제격을 얻을 수 있다.)의 묘를 터득했다 할 것이다.

장황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그들은 다시 한 번 그 그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낙엽이 대지 위를 뒹구는 이 가을에, 지금 불현듯 석가탑 앞에 서보고 싶은 것은 왜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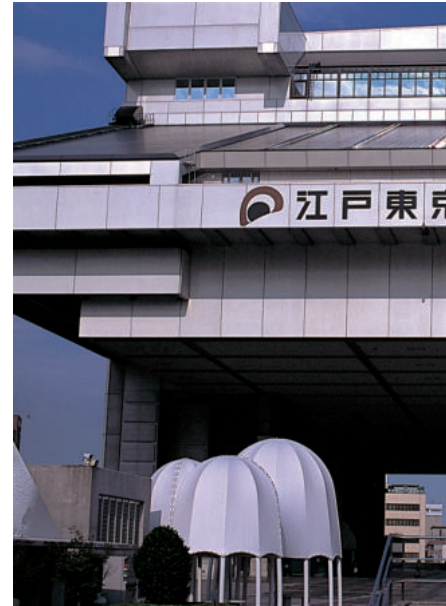
일본의 박물관을 돌아보고

한영민 | 회원

출발을 앞두고 태풍이 계속 올라와 걱정했는데 다행히 3박 4일 동안 일본의 날씨는 좋았다. 잠을 설치고 공항에 가니, 일행 중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회원이 여덟 분이나 있어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도착한 첫 날은 료고꾸(兩國)역 근처에 있는 에도(江戸)동경박물관부터 시작했다. 高床式의 공간을 이미지한 박물관 건물은 가장 높은 곳이 62미터나 된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동경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고 미래의 도시와 생활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1993년에 개관했으며, 상설전시실의 에도존에서는 에도시대의 도시원형·생활상·문화 등 에도의 성립과 막부체제의 구조를 보여주었고, 동경존에서는 수도 도쿄의 탄생과 근대도시의 생활, 전쟁과 부흥과정 등을 전시했다. 특히 상설전시실은 니혼바시(日本橋)와 에도의 전통건물을 재현한 실물 크기의 모형들과 실제 유물들을 함께 전시해 신문물 도입 등 역사의 변천과정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고상식 건물이라 실내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체모형 전시를 할 수 있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기획전시 중인 신발견 古考續報 『일본열도 2002전』에서는 2001년 일본의 여러 유적에서 발굴된 석기·토기 등의 유물들과, 1300여년 전 일본 최초의 벽화고분으로 추정되는 아스카시대 키토라고분 석실을 재현한 모습과, 고분탐사시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려고 사용했던 장비인 화이버스코프(Fiber Scope)도 전시되어 있었다.

둘째 날은 우에노(上野)공원에 있는 동경국립박물관을 찾았다. 여기서는 2002년 FIFA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기념으로 두 나라의 문화교류 행사 중 하나인 『韓國의 名寶』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번 특별전은 1976년 일본에서 개최한 『韓國美術五千年展』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신석기시대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우리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 박물관은 백여 점에 이르는 국보와 오백여 점이 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곳이다. 『韓國의 名寶展』에서는 우리의 국보이자 자랑거리인 금관총 금관과 鄭轢의 金剛全圖, 언제 보아도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보물175호 백자상감연당초문대접이 특





고상식의 공간을 이미지한 에도동경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앞에서 일행과 함께

히 눈에 띄었다. 우리의 귀중한 유물을 이국에서 보니 더욱 자랑스럽고 소중한 느낌이 들었다. 法隆寺 박물관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개별 독립장 속에 전시되어 유물의 입체적 감상을 쉽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공원 내의 국립서양미술관과 국립과학박물관도 관람했는데, 과학관 옥외의 우주로켓 모형 전시는 일본이 우주과학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늦은 오후 동경역에서 신간선을 타고 천년고도 교토로 향하는 열차에서 잠시 피로를 풀었다. 교토는 도예·염색·인형과 부채공예·전통과자 등 특유의 공예품 생산지로 유명하며, 일본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날은 이미 어두워 창밖의 경치는 볼 수 없었지만 안락한 열차에서의 저녁 도시락은 시장했던 우리에게 별미였다.

셋째 날은 상큼한 공기를 마시며 기요미즈테라(靑水寺)에 올라 교토의 전경을 감상하고 내려오는데, 길 양쪽으로 들어서 있는 기념품 가게들은 가히 일본 전통미의 축소판이었다. 우리들은 耳塚과 산주산켄도(三十三間堂), 교토국립박물관, 니조조(二條城)와 긴카쿠지(金閣寺)를 돌아보고 고류지(廣隆寺)로 향했다. 우리 나라 국보83호와 너무 닮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일본의 국보1호인 광릉사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대하는 순간 잔잔한 미소 속으로 빨려들어가 한참동안 넋을 잃었다. 바쁜 일정으로 아쉬움을 남긴 채 저녁 숙소인 오사카로 향했다.

마지막 날 아침 오사카의 나카노시마(中之島)의 고풍스런 건물들을 구경하면서 요도강(淀川)가에 있는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으로 갔다. 국립중앙박물관 신문에 자주 소개되어 평소 관심이 많았던 이곳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도자기들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오사카시가 스미토모(住友)그룹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타카(安宅) Collection을 기증받은 것을 기념해 1982년 설립한 곳으로, 보물급인 한국 도자 793점과 근년에 재일교포가 우리 도자기 301점과 중국 도자기 50점을 기증해 현재는 동양 최대의 도자기미술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증한 우리 도자기들 중에는 국보급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오사카시립역사박물관에서는 나라문화재연구소 창립50주년 기념 특별전인 『飛鳥藤原京展』이 열리고 있어 여러 유적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오사카시립역사박물관을 끝으로 일정이 짧아 아쉬움도 있었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박물관회에 감사드리며, '이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다음 답사에는 좀더 공부하고 가야겠다고 느꼈다. ㉓



유물복원과 함께 한 3년

전 상 진 | 유물정리 자원봉사

유물정리·복원 자원봉사자로 조심스레 고고부 작업실 문을 노크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짧으면서도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평균 1주일에 3일, 특별히 전시를 앞두고나 빨리 복원을 마쳐야 할 경우 4~5일을 유물들과 함께 숨쉬며 보냈다. 그 덕분에 주위에선 자원봉사를 하는거나 아예 취직을 한 거냐며 놀려댔고, 우리가 등지를 튼 고고부 작업실은 이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유물이라는 마약에 취한 중독자라 일컬으며 유물복원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1999년 봄, 유물정리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는 내 가슴을 뛰게 했다. 어릴 적부터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내게, 자원봉사는 고고학자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강의시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나, 박물관 전시실 유리벽 너머로 멀게만 느끼던 유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거창하지만 내 손으로 복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매력적인 일이었다. 박제상태의 지식이 경험이라는 생명을 얻어 숨쉬게 된 셈이었다.


처음 작업실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우린 거의 얼어 있었다. 유물을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들뜬 기분은 막상 사방에 놓여 있는 유물, 즉 토기들을 본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과연 잘 해낼지 걱정이 앞섰다. 널려 있는 토기를 건드려 깨뜨리지 않을까, 복원한다는 것이 오히려 훼손하는 건 아닐까, 한 사람의 잘못이 자원봉사자 전체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등등. 그래서 토기를 다룰 땐 조각조각 아기 다루듯 조심스레 다뤘고 일도 빨리 익히려 노력했다.

유물은 하나의 타임머신이다. 우린 유물과 함께 저 멀리 신석기시대부터 가까이는 20세기 초까지 시간여행을 했다. 맨 처음 접한 것은 신석기시대의 동삼동 패총 출토 토기편들이었다. 토기편 안쪽에 출토구역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는 넘버링을 시작으로 자잘한 토기편 더미 속에서 같은 편을 찾아 접착제로 붙이는 일은 스틸마저 느끼게 하는 신나는 일이었다. 편맞추기에 깊이 빠진 나머지 길가다 깨진 보도블럭을 이리저리 맞추거나, 먹다 부서진 과자조각을 진지하게 맞추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하나 하나 어렵게 맞춘 토기편들이 모여 조금씩 형태를 띠어갈 때 그 기쁨이란!

생명 없는 토기편이 내 손을 빌어 살아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토기문양의 다양성은 우릴 놀라게 했다. 단순히 빗살무늬·민무늬를 되뇌다 마주한 지두문·용기문·그물무늬에, 그은 선의 굵기·길이·형태·배합차이에 따른 다양한 여러 문양은 요즘 시대에 내놔도 손색 없는 뛰어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토기편을 어루만지며 각 편마다의 태토 차이를 느끼고, 문양을 손끝으로 따라가다 보면 토기편 하나 하나의 아름다움에 빠져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호리 출토 토기 작업부터 본격적인 복원경험을 쌓아갔다. 박스에 담긴 수백 개의 편들을 붙잡고 한 달 두 달을 매달려 거의 완형에 가깝거나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도록 형태를 고정시키고, 편 없는 부분을 편 있는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 합성수지로 복원해 나갔다. 처음에는 편을 잘못 붙여 전체적인 공률이 맞지 않거나 너무 큰 토기나 구연부·저부같이 어려운 부분을 복원할 때는 암담했다. 만지기만 해도 비스킷처럼 쉽게 부서지는 연질토기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고, 복원한 부분의 문양을 똑같이 그리느라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린 각자 나름대로의 복원 노하우를 쌓았고, 어떤 토기도 복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낙랑토기·법천리 출토 백제토기·몽골토기가 복원을 통해 완형의 유물로 거듭났고 『겨레와 함께 한 쌀 특별전』·『낙랑특별전』·『몽골유적조사 5년』·『쌀 특별전』에서는 우리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토기들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실측을 익히고, 합성수지로 복원한 부분의 토기 색과 비슷하게 칠하는 컬러링 작업을 했다. 토기와 낙랑시대 전돌, 백제기와와 와당을 탁본하기도 했다. 틈틈이 법천리·양수리·늑도 등의 발굴현장을 찾아 땅 속 유물이 어떤 발굴과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지켜보았다. 그늘 한 점 없는 퇴약별에서 묵묵히 땅을 파고 골라 유물 한 조각을 끈질기게 찾아내는 발굴대원의 모습은 작업실에서 편히 일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뒤돌아보면 3년간 어디서도 얻지 못할 귀한 경험을 했다. 자원봉사의 의미대로 일손을 돕는 기쁨도 있었지만, 유물복원에 한몫을 했다는 점과 중요한 유물을 다루는데 별다른 사고도 없었다는 게 더 큰 기쁨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좀더 활성화되고, 다른 분야의 유물복원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의 우리가 출발점이 되어 고고학에 관심있는 이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해 일본처럼 전문가 못지 않은 복원기술을 지닌 고고학 저변인구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너무 거창한 꿈일까? 



처음 작업실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우리는 거의 열여섯이었다.
유물을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들뜬 기분은 막상 사방에 놓여 있는
유물들을 본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과연 잘 해낼지 걱정이 앞섰다.



화각함의 세부도

돌아온 화각함

우리 한국박물관회(前회장 김영수)는 2002년 11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유물은 19세기에 제작된 수준급의 유물로서 규격은 28.1×21.0×17.4cm이다. 이 유물은 뚜껑이 달려 있는 장방형의 사각함으로 봉황·학·호랑이·사슴·거북이·두꺼비와 소나무·불로초·구름 등의 수복을 뜻하는 상서로운 소재들이 그려져 있고, 양 측면에는 여인의 좌상이 있으며, 함의 내부는 검은종이로 마감되어 그 기법이 뛰어나고 섬세하다. 우리 박물관회가 기증유물의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더불어 미국 크리스티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구입 기증한 것이다. 이번 유물기증은 개인 위주로 이루어져 온 지금까지의 기증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수집품이 기증되는 경우와는 달리 법인 등의 단체가 유물을 수집해 기증하는 운동의 새장을 연 뜻있는 행사였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의 화각함 기증은 새국립중앙박물관 목공예실의 전시유물 확보라는 면에서도 의미가 크며, 국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의 환수라는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27**(화)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朝鮮時代 風俗畫展

2002. 3. 12 ~ 2002. 7. 14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기념으로 『朝鮮時代 風俗畫展』을 개최했다. 金斗樑·金德履의〈四季山水〉, 김홍도의〈풍속화첩-씨름〉, 신윤복의〈女俗圖帖-전모를 쓴 여인〉 등 조선시대 풍속화 200여 점을 선보였다. 각 작품은 善政과 太平, 雅趣와 風流, 生業과 休息, 信仰과 祈禱 등 소주제로 나누어 전시했다. 특히 기존에 풍속화로 분류하지 않았던 문인들의 계회나 아회모임, 관인의 공식모임, 기록화 등을 다수 공개해 조선시대 궁중과 지배층·평민층의 생활과 이상, 신앙을 엿볼 수 있었다.



몽골유적조사 5년

2002. 4. 23 ~ 2002. 5. 19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몽골에서 실시한 제1차 한-몽 공동학술조사(Mon-Sol Project)의 성과를 정리해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했다. 이번에 전시한 유물은 지난 5년간 공동조사에서 출토한 구석기시대에서 홍노시대에 이르는 석기·토기·청동머리장식·말총방울·거울·와전·철기·칠기 등 350여 점이며, 몽골지역의 유물변천상을 잘 보여주었다.



日本美術名品展

2002. 5. 14 ~ 2002. 7. 14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친선과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일본미술명품전」을 전시한 유물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일본 미술을 대표하는 뛰어난 작품으로 회화·조각·공예·서적·고고자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엄선한 국보급문화재 189건 298점을 전시했다.



高麗·朝鮮의 對外交流

2002. 8. 27 ~ 2002. 10. 13

기획전시실에서 우리나라 대외교섭의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전을 열었다. 각 시대별 주변국과의 다양한 교류와 인식의 확대과정을 보여주었다. 국보 2건을 포함, 전적류·회화류·고지도·묘지석·공예품 등의 중요유물 350여 점을 선보였다. 이 전시는 옛 선조들의 대외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세계화 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문화교류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日本近代美術

2002. 10. 28 ~ 2002. 12. 8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일 문화교류에 힘입어 특별전을 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본격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 작품 중 일본화와 공예품 70여 점을 정선하여 전시했다. 일본화는 장르별로 인물화·화조화·산수화로 나누고, 공예품은 재질별로 도자기·칠기·유리·대나무·금속으로 나누어 작품의 성격과 의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창중 기증 기와·전돌

2002. 12월 28~2003. 2. 16

이 특별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살문수막새를 비롯한 600여 점의 기와와 전돌을 엄선해 소개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해 우리나라·중국·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와전문화를 일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통일신라의 보살문수막새와 鬼面瓦 瓦范은 발견 예가 적은 희귀품이며, 발해의 수막새와 銘文瓦 또한 일반에게 소개된 예가 드물어 관심을 끌었다. 이번 특별전은 평생 수집한 1,873점의 와전을 아낌없이 기증한 유창중 서울지검장의 뜻을 기리고, 나아가 유물기증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전시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와전문화 변천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각별한 자리가 되었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걸어온 길

한국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 동안 洪鍾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회장을 거쳐 2002년 11월 俞相玉 회장이 취임했다.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회원·평생회원·영구회원·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회원·금관회원·은관회원·청자회원·백자회원이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사람은 평가·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지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전시지원 |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준비와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지원 |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비 지원, 도서를 구입하여 기증하고 있다.

■ 교육지원 |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박물관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 유물기증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하고 있다.

천전리암각화모형 기증, 청자벼루 구입기증, 유물관리전산화 지원, 18세기 노안도죽자 기증, 화조8폭병풍 기증, 독일제 유물진열장 기증, 학술도서 20년간 1,500여 권 구입기증, 매년 2명씩 학술연구비 지원, 조선시대 화각함 구입기증 등을 했다.



자원봉사

3년 이상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 중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 전시실 자원봉사

특별전시 안내 | 특별전 기간 중 국내외 일반인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청소년 학습지도 | 중·고교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시실 현장학습
상설전시 안내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전시유물 안내

■ 유물정리 자원봉사

발굴조사 유물정리 | 발굴유물의 세척, 유물등록·실측, 토기편 맞추춤, 복원작업
자료정리 | 사진·도면 등의 정리
발굴현장조사 | 발굴현장에서 세척, 약실측, 정리, 분류 등을 보조

■ 출판홍보 자원봉사

원고 수집 정리·기획 편집·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2004년 ICOM서울총회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 수강생 모집

모집인원 | 화·목요일반(각 200명)

모집대상 | 25세 이상 59세 미만의 대학원 강의 수강 가능한 사람으로 고고학·미술사·민속학·역사 등의 연구 희망자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박물관 특설강좌 수료자는 제외)

수강기간 | 2003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16:50)

강좌내용 |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회화사·도자사·건축사·박물관학·민속학·사상사·과학사·전시실교육, 현장학습 등 50여 강좌 150여 시간

강의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문화사업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출판과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 **출판** |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인쇄물과 CD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한국고고학미술사요해, 한국미술오천년 영문판, 동원수집문화재 1집, 동원수집문화재 2집, 동원수집문화재 3집, 동원수집문화재 4집, 고려청자명품도록, 박물관신문 축쇄판 2집, 실크로드미술특별전도록, 한국전통문화, 즐거운 박물관여행, 한국전통문양 1집·CD,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도록, 아름다운 금강산 특별전 유리원판도록, 한국전통문양 2집·CD, 한국전통문양 3집, 조선시대 풍속화 특별전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본근대미술도록 등을 발간했다.

■ **문화상품** | 우리 문화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살린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관람객 편의** | 박물관 관람객에게 편의시설과 전시실 홍보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8매 정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특설강좌** |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 여 명을 배출했다. 매년 화·목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 150여 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 **연구강좌** |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했고, 1997년 특설강좌 기수별 스튜디오를 통합·재편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미술사 등 6개 반으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각 반은 200여 명으로 매년 1,2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 1975년부터 시작해 300여 회를 넘었다. 매일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의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답사를 운영하고 있다.

■ **학술강연회·발표회** |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을 만들면서

군인 간 아들 편지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듯 우리의 「박물관사람들」이 영원히 사랑받기를... (기)

이번에 발간되는 회지를 통해 화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기 전까지는 나에게 있어 화폐라는 것은 그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 이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회지 작업을 통해 지금껏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보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다. (은)

서로 없어서는 안된다는 신뢰감이 있는 조직체에 멤버가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칭찬이 거나 후평이거나 '내'가 아닌 '우리'가 받는다는 것 또한 참으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련)

첫 산고를 겪어내는 에미된 심정으로... 이렇게 짧게 쓰면 안 되나요? (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온다. (水)

古跡 앞에 서면 當代 사람들의 마음이 나무와 풀, 꽃과 이끼가 되어 季節마다 다른 색깔의 옷을 갈아입고 바람 소리로 다가온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함장하는 마음으로 이 첫 작품을 만들었다. (산)

늘 손님처럼 드나들던 박물관이었는데, 이 책을 만들면서 난 '박물관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嬢)

한 줄의 글귀라도 읽는 이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기를 기대한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경)

박물관 사람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제1호

발행일 | 2003년 3월 15일

발행처 | 한국박물관회

발행인 | 회장 유상욱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김기자 김은희 김혜련 손이화 유건집 최경자

디자인 | 전영랑

진행 | 이홍표 이진성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110-820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자원봉사활동, 공익적인 문화사업,
박물관 지원사업 등을 합니다.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회**
THE MUSEUM MEMBERS SOCIETY OF KOREA

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국립중앙박물관 내
Sejong-no 1, Chongno-gu, Seoul, 110-050 Korea
전화 : (02) 398-5193 · 730-7093
팩시밀리 : (02) 723-709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